

# “금동·신흥동 문화예술 이정표 세워야”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10일간 의정 돌입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서  
김중신 의원 “월명산 전망대 높이 더 높여야”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제216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 챙기기를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조례안, 군산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한다.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배형원, 김중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을 짚고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따져 물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 미래를 전망해 볼 때 군산발전의 중요한 투자분야가 문화·예술분야와

아와 접목하는 것”이라며 “월명산 남쪽으로 군산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군산 근대사의 Story Telling과 함께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금동과 신흥동 지역에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중신 의원은 “군산시가 2017년 월명산 전망대 및 삼터조성사업을 지상 3층으로 전망대 높이 30m에서 최고 45m까지, 건축면적 818.93제곱미터 규모로 신축계획을 세워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 세관건물 문화재의 고도제한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건축심의를 받아서라도 높이를 더 높여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는 월명산 전망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노동지청, 청년 고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고용노동부 산하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청년 고용 확충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려금 지원 대상 업체는 2018년도 연평균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장려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지원된다.

업체는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기업당 지원한도 인원은 최대 90명까지다.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함자 수 산정 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

도 연평균’으로 변경됐다. 또 장려금 신청주기도 매월에서 3개월 단위로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익산고용지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60여개 사업장에 총 19억원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통계청 주관 지역 내 사업체조사 실시

군산시는 1인 이상 종사자를 둔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사업체조사는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

여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 기본현황 및 사업의 종류, 연간매출액 등 총 14개 항목이며 올해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체 증가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항목이 추가로 실시된다. 사업체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

준, 군산시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이며 조사요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담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조사내용은 통계법 관련 조항에 따라 비밀은 보호되고 통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미래자동차 핵심 배터리 인재 키운다

군장대-디에이테크놀로지 업무협약 체결

군장대학교(총장 이승우)가 미래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해외 취업에 앞장선다. 군장대에 따르면 LG화학 협력사인 (주)디에이테크놀로지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전문인력 400여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군장대에서 2년간 전문특성화 교육과정을 받고 폴란드에 건설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공장에 취업하

게 된다. 두 기관은 이날 군장대 이철 부총장, 디에이테크놀로지 이현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장대 회의실에서 MOU를 맺었다. 이승우 군장대 총장은 “국내 최고 자동차 명장들의 노하우와 IT가 융합된 미래형 전문인력을 육성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톱 메이커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통계청 주관 지역 내 사업체조사 실시

군산시는 1인 이상 종사자를 둔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사업체조사는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 여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 기본현황 및 사업의 종류, 연간매출액 등 총 14개 항목이며 올해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체 증가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련 사

업체 여부 항목이 추가로 실시된다. 사업체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군산시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이며 조사요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담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조사내용은 통계법 관련 조항에 따라 비밀은 보호되고 통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한다.

##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현수막 운영

군산시가 소상공인들의 홍보 지원 및 무질서한 불법 공공현수막 근절을 위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홍보용 114면과 각종 행사 및 행

정홍보용 122면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매주 월~수요일까지 소상공인 증명서류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건축경과에 신청순 접수하면 된다. 각종 시책 및 행사홍보와 정당 및 공공기관 등의 행사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